

공연 2: Hyeonkyu Cho

기타 연주법 중에는 “핑거스타일 주법”이라는 연주법이 있습니다. 핑거스타일 주법은 여러 명이 연주하는 듯한 소리를 내는 주법입니다. 이런 연주법으로 기타는 여러 종류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같은 곡에도 개인의 해석을 넣어 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기타의 소리에 빠져, 7학년 때 기타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명한 기타 연주자들에게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취미로 기타연주를 해왔는데요. 현재 대학교 입시 준비중에 있는 저에게 부모님은 공부에 집중 하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기타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타를 계속 치라는 제 마음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가하기를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런 취미들을 통해 우리들은 개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런 취미들을 통해 행복을 얻게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짜증이 날때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점도 많을테고요. 하지만, 취미생활이 가져오는 행복함도, 힘듦도, 다 인생의 중요한 여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미생활을 해오면서 저에 대해 한가지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제 꿈은 제 음악 연주로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는 것 처럼, 그들의 꿈도 다릅니다. 자신의 꿈을 구하는 공식도, 규칙도 없어 때론 자신의 꿈 찾기란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어렵게 찾아낸 꿈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을 쫓을 때,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느낌에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꿈을 쫓으면서, 자신만의 개성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